아베 위안부 발언 사과

관방부장관은 "부모가 딸 판 것" 망언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군대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 국제적 비난을 받아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총리로서 지금 당장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고노담화에 쓰여 있는 대로다"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여러 번 언급했듯이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동정을 느끼며 그들이 당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은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관방부장관은 지난 25일 일본군이 2차대전 당시 군대 위안부를 직접 징집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시모무라 부장관은 라디오 니폰에 출연해 "종군 간호사와 기자는 있었지만 종군위안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안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나는 일부 부모들이 딸을 팔았던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다고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노예무역 폐지 200주년을 맞아 요크셔주 헐에서 런던 시내까지 250마일에 이르는 '증거의 행진'에 참석한 영국 시민들이 24일 무릎을 꿇은 채 사죄하고 있다. /AFP·AP연합뉴스

美 하원 '종군 위안부 결의안' 지지 의원 69명

동포사회 총력…통과 파란불

지난달 마이클 혼다 의원이 상정한 종군위안부 결의안(HR 121)을 지지하는 의원이 현재 69명으로 늘어나 본회의 상정은 물론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미주 한국일보가 26일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CBS 리얼리티 쇼 '서바이버' 우승자인 권율(32)씨를 비롯한 재미동포 등 30여 명은 지난 22일 의회를 방문,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로비를 펼쳤다.

이날 의회 로비는 100여 개 인권 단체들로 결성된 '121 연합'이 주도했으며 이 단체는 지지 의원 100명을 목표로 로비하고 있다. 하원 외교위는 공동 발의자가 100명에 이르는 대로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이다.

동포는 물론 베트남계, 독일계 미국인 등 참가자들은 7개조로 나뉘어 200여 명의 의원 사무실을 돌았으며, 이날 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로비에는 한미봉사단, 북버지니아 한인노인회 등 다수의 워싱턴 한인단체에서 참여했으며 뉴욕한인유권자센터에서도 대표자를 보냈다. /연합뉴스

"선조들 노예무역 참회합니다"

英 노예무역 폐지 200주년 행사 블레어 총리는 '공식 사죄' 거부

영국 런던에서 3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노예무역 폐지 200주년을 맞아 '사죄의 행렬'에 참석했다.

25일은 영국 의회에서 노예무역 금지법을 채택한 지 200주년을 맞는 날. 이 날을 하루 앞둔 24일, 시민들은 "매우 유감입니다(So Sorry)"라는 사죄의 글을 써넣은 검은 티셔츠를 입고, 목에는 멍에를, 손에는 수갑을 찬 채 200년 전 영국의 잘못을 고백하며 런던 시내를 행진했다.

'증거의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사죄 행렬은 영국 성공회의 수장인 로완 윌리엄스 캔터베리 대주교와 존 센타무 요크 대주교가 이끌었다.

센타무 대주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한 때 양파나 옥수수 같은 작물을 수확하듯 노예를 사고 판 나라"라며 토니 블레어 총리는 노예무역 활동에서 영국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레어 총리는 영국이 저지른 노예무역 만행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 사죄는 거부하고 있다. /런던=연합뉴스

美 공화 의원들 '이라크 정책' 분노

"부시 탄핵 검토중" 파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 상원의원이 의회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독불장군식 이라크 정책에 분노한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선택 방안의 하나로 검토중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라크 전쟁을 비판해온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2008년 대통령 선거 출마도 고려하고 있는 척 헤이글 의원은 25일 탄핵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 감정을 계속 거스를 경우 탄핵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한 방안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헤이글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추가 파병을 결정하는 등 이라크문제에 대한 국회의 생각을 공공연히 무시하는데 짜증이 난다면서 의원들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에 대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해서건 다른 문제에 대해서건 국민이나 의회의 생각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공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다면 나도 내가 말해온 것을 추진할 것이다. 그런 행위에 대처할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헤이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헤이글 의원은 에스콰이어지 4월호에서도 부시 대통령을 자신이 누구에게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라면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탄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노토지진은 미지의 단층에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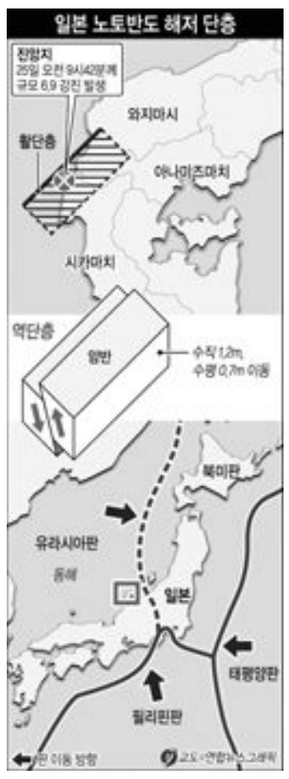
日 열도 불안 계속

25일 오전 노토반도 일원에서 큰 피해를 낸 지진은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은 해저 연안 단층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본 열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 노토지진과 같은 연안의 해저 활단층은 육지의 활단층에 비해 발견이 쉽지않고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는 실정.

일본에서는 태평양쪽에서 해저판이 일본열도 쪽으로 파고들면서 동서에서 압축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압력을 견딜 수 없게 되거나 지각이 약한 부분이 무너지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170만년 전부터 반복돼온 이 같은 지각 활동에 의해 균열이 생긴 곳이 활단층으로, 육지나 해저에 생성돼 있다. 그러나 육지의 활단층은 항공 사진 등으로 찾아내기가 쉽지만, 해저의 경우에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않은 상태다. /도쿄=연합뉴스



'포스트 후진타오' 시진핑 떴다

■中 권력구도 개편 어떻게

중국 차기 5세대 권력구도의 밑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올가을 전당대회격인 17차 전국대표대회(17大)를 앞두고 천량위의 낙마 이후 겸직 상태로 두고 있던 상하이 서기에 시진핑(53·사진) 저장성 서기를 전격 임명하는 등 주요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향후 중국의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단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5세대 지도부가 누가 될 것인지 내다보는 단서로 부족함이 없다.

5세대 권력핵심 첫 등장

◇후 주석 당 인사권 장악 못해=후 주석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인사는 그러나 아직까지 후 주석이 확실한 당 인사권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시진핑 서기를 중국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시 서기로 선택한 것은 권력 파벌간의 정교한 합작품으로 보인다.

시 서기는 공청단 출신에 칭화방(칭화대 출신) 일원이기는 하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을 지낸 시중쉰의 장남으로 오히려 태자당이나 장쩌민 전 주석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인사의 핵심자리인 상하이와 톈진을 쩡칭훙, 또는 장쩌민에게 양보한 것은 후 주석이 아직까지 일방적인 권력을 행사할 정도로 장악력이 무르익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홍콩의 관측통들은 전하고 있다.

◇장기적 인사 풀 확대에 주력=후 주석은 최근 인사에서 자신의 완전한 의사를 관철하지 못하는 대신 장기적 안목에서 자신의 인맥을 심는데 주력하고 있다.

후 주석이 공청단 출신으로 최연소 지방서기 기록을 갖고 있는 자오러지 서기를 산시성 서기로 전진 배치한 것은 먼훗날을 내다본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후 주석은 1급지의 서기직은 포기하는 대신 2급, 3급지의 서기 및 성장에 자기 인맥을 포진시켜 차기 후계구도가 본격화되는 3~5년후 인사 풀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누가 최고 지도부 진입하나=후 주석과 쩡칭훙의 권력배분 원칙이 17대까지 이어진다면 후 주석은 장쩌민 세력군을 완전히 상무위원단에서 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후주석, 인맥 심는데 주력

시진핑 서기는 예외없이 상하이 서기가 최고 지도부에 올랐다는 관례상 상무위원단 진입 '0순위'로 올라섰다.

이런 점에서 시 서기 외에공청단 출신으로 후 주석 측근으로 분류되는 류옌둥 중앙통일전선부장이 홍일점으로 상무위원단 진입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그러나 차기 지도부 구성에서도 후 주석은 장쩌민의 그늘을 벗어나지는 못하리라는 것이 일치된 예상이다. /홍콩=연합뉴스